

2016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결과보고서

군민들과 함께 불 밝히는
밤마실 야(夜)한구경

2016. 10.



부안군(전라북도)

□ 현 황

- 2003년 방폐장부지 유치사건으로 찬·반 갈등을 겪은 부안군민들은 군정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실질적인 군정참여율은 낮음
- 관심이 곧 참여가 되도록 소통의 매개체가 절실했고, 군민 간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군정참여방안이 필요

□ 정책 추진 내용

- 관광동선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관광객들이 읍내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읍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낌
-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관심을 받자 공공디자인, 지역문화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모임
-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하나의 현안에 대해 장기간 토의하고 대안제시형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연구모임 『정책랩(Lab)』 이 결성됨
- 야한구경랩 결성('15.5월) ⇒ 군정참여위원회 구성('15.12월)

□ 국민디자인단 운영 성과

-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 『밤마실 야(夜)한구경』 발굴
- 주민참여형 재능나눔콘서트 『야(夜), 구경(九景)가자!』 개최 : 2회
-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정책토론회 개최 : 4회

□ 향후 추진일정

- 청소년을 위한 재능나눔 청년 모임 『COSMOS』 결성 : '16. 12월
- 『밤마실 야(夜)한구경』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17. 3~4월
- 청소년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17. 1 ~ 12월

과제 분류	우수과제	주관 기관 (협업/관련 기관)	부안군 기획감사실
과제 담당자	기획감사실장 (황은성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 063)580-4241 H.P : 010-2864-8373

가. 현 황

□ 군정참여율이 낮은 이유

○ 2003년 방폐장 유치사건 이후

- 2003년 방폐장부지 유치사건은 유치가 무산되면서 끝이 났지만 이때 찬·반으로 갈린 군민들 간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1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부안군민은 찬·반을 떠나 행정과 공무원을 불신하지만 군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 지나친 관심은 비판을 위한 비판, 무조건적인 반대 등 정책추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다.
- 첨예하게 갈렸던 찬·반의 잔재는 어느 편 사람이었다는 식의 꼬리표를 남겼고 결정적 순간에 이분법적 판단의 흑백논리가 되어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찬·반의 논리는 많이 퇴색했지만 한쪽의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눈치보기식 자리 매움 참여는 사실상 참여가 아니라 동원에 가까웠다.

○ 방폐장 사건의 당사자인 김종규 군수 당선

- 민선3기 때 방폐장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김종규 군수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유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유치신청 무효화를 주장했었다. 당시 김종규군수가 민선6기 부안군수로 다시 당선되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과의 소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이에 부안군은, 주민들의 군정참여 방안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제도화 하고자 노력해 왔다.

□ 12년간의 갈등을 녹여내며 군정참여를 이끌어 낸 부안마실축제

○ 거리축제로 전환한 부안마실축제

- 2015년 제3회 부안마실축제는 축제장소를 기존의 읍내 외곽의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읍내 중심의 거리 한복판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축제로 전환하였다. 전국 최초 소도읍 거리축제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을 거리형으로 바꾸고 군민과 공무원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영하게 되었다. 축제기간에 읍내 주요도로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우려를 불식시킬만큼 큰 성공을 거두면서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거듭난 부안마실축제

- 축제의 피날레였던 “결혼식 때 한복입고 강강술래”는 12년만에 처음으로 모든 군민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모든 군민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갈등을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안군민들은 축제를 통해 갈등과 불화를 과거로 남기게 되었으며 거리형 부안마실축제는 방폐장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가장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켰다.
- 3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읍내 구석구석이 공개되면서 거리문화, 공공디자인, 지역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고조되었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정참여욕구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부안마실축제 사진>



나. 정책 추진 내용

① 밤마실 야한구경 탄생의 2가지 동기부여

□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의 필요성

- 부안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변산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내소사 등으로 유명하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은 대체로 부안IC와 줄포IC를 통해 들어와 국도 30호선인 해안선을 따라 변산면(변산해수욕장, 격포항, 채석강)과 진서면(내소사, 곰소염전, 젓갈마을), 줄포면(줄포만갯벌 생태공원)으로 이어진다.
- 변산에 대명리조트가 입주하면서 가족형 콘도와 수 백 개의 펜션들이 들어서고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부안읍내로 유입되지는 않았다. 관광객들의 패턴도 먹고 마시는 먹거리 위주의 소비성 관광보다는 가족체험형, 문화탐방형 등으로 진화하면서 인근 주변 관광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변산면과 진서면에서 부안읍내까지는 30분 이내로 관광객들에게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 2015년 부안마실축제가 끝나고 관광객들을 읍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1박 2일 관광상품의 목적은 부안읍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소도읍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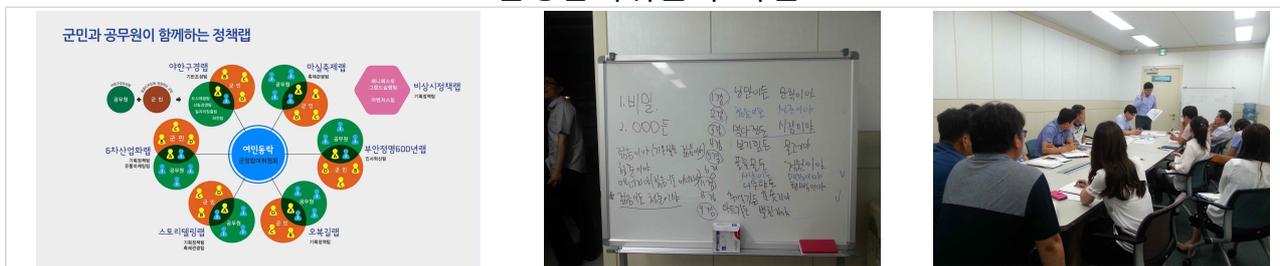
□ 군민과 공무원 간의 소통의 매개체로 정책랩(Lap) 구성

- 축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축제와 같은 공동의 관심사, 군민과 공무원 간의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 축제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면서 공공디자인과 도시재생,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 모임에 공무원들이 합류하면서 정책랩이 생겨났다.

정책랩은, 군정이 정책을 군민과 공무원이 기획하고 설계한다는 취지로 모인 정책실험모임 또는 정책연구모임이다. 군정현안을 주제로 정책랩이 운영되면서 군정참여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요구, 사업 추진 시의 문제점에 대해 군민과 공무원들이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 정책랩의 장점은 군정의 정책을 기획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행정의 전 단계를 군민이 참여한다는 데 있다. 정책랩을 통해 8개월간 군정참여에 대한 근육을 키운 후, 군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군정참여위원회 사진>



2 밤마실 夜한구경의 탄생

□ 화투판도 족보가 있고, 풍경에도 9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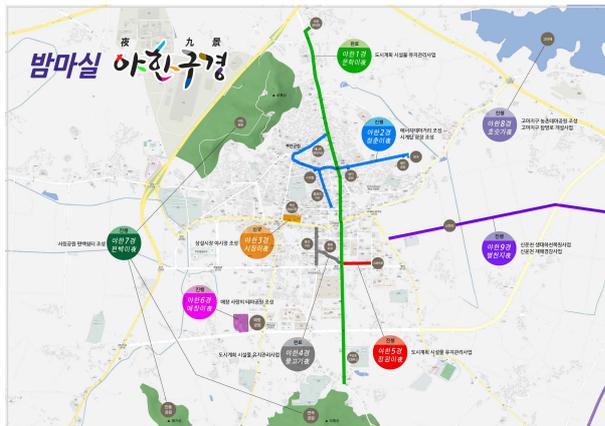
- 정책랩에서 주목한 것은 이미 조성한 곳과 현재 조성 중인 사업이었다. 석정문학관, 부안상설시장, 물의거리, 매창공원 등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음의 거리, 에너지테마거리,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신운천생태숲조성, 고마제 등은 국도비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었고, 진동·서림·석동공원은 흔한 산책로여서 새로운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 9곳을 선정해 밤마실 夜한구경을 만들었고 주민들과 함께 콘셉트 회의, 기본계획회의, 실시설계회의를 함께 해 나갔다.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것뿐이었고, 그 하드웨어에 스토리텔링과 운영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민참여형 회의를 통해 만들어 갔다. 관심은 참여가 되었고, 참여는 희망을 낳았다.

□ 밤마실 夜한구경의 명칭과 조성구간

구분	테마	스토리명	장소	담당팀	비고
夜한1경	비밀의문	상상이den 문학이夜	석정문학과~부안동초등학교	관광축제	완료
夜한2경		낭만이den 청춘이夜	에너지테마거리~시계탑~ 젊음의거리~쌈지공원~등대	농촌개발 도시재생	완료 진행중
夜한3경		먹다정den 시장이夜	부안상설시장	일자리창출	완료
夜한4경		보기힘den 물고기夜	물의거리, 룡롱피쉬	도시재생	완료
夜한5경		풀꽃물den 정원이夜	너에게路(1,2구간)	기반조성	완료
夜한6경		사랑이den 매창이夜	매창사랑의테마공원	공원녹지	진행중
夜한7경		나무향den 편백이夜	서림·연곡·진동공원	공원녹지 산림경영	진행중
夜한8경		하늘물den 호숫가夜	고마제	기반조성	진행중
夜한9경		편지가den 별천지夜	신운천 생태숲 조성사업	수생정원	진행중

※ 밤풍경 夜한구경 앞에 낮풍경의 이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1개월간의 난상토론 끝에 도시정원(Garden)의 느낌을 살려 낮이름이 생겨났다.(상상이든, 낭만이든, 먹다정든, 보기힘든, 풀꽃물든, 사랑이든, 나무향든, 하늘물든, 편지가든)

□ 조감도



③ 군민디자인단 『부안군 군정참여위원회 구성('15.12월)』

- 정책랩을 통해 7개월 간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밤마실 夜한구경 등 주민참여형 정책추진단으로 군정참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최근 3년간 주요 정책추진 계획 >

'16년	'17년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마실 야한구경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조성(2곳)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2곳,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군민디자인단 발족 ○ 밤마실 야한구경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확산(4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마실 야한구경 조성 완료 및 관광상품화 ○ 9경별 운영프로그램 군민 추진단 구성 및 활동

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성과

1. 군정참여위원회 구성 및 밤마실 夜한구경 본격 추진

□ 군정참여위원회 구성

- 정책랩에 참여했던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공동체문화와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였고, 여기에 부안군의 문화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가세하여 19명의 군정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정책랩을 통해 기획된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 <밤마실 夜한 구경>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토론이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제2차 회의 개최

□ 밤마실 夜한구경을 위한 시뮬레이션 회의 개최

- 정책랩을 통해 기획된 부안읍내 1박 2일 관광상품 『**밤마실 夜한구경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9인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이 2명씩 한조가 되어 9경중 각 1명씩을 전담하고, 토론회에서 분임장을 맡기로 계획했다.
- 심도 깊은 토론회를 위해 9경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팀원이 2명씩 배정되었고, 15년 9월에 입사한 신규공무원들이 서기를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위원 2명, 공무원 2명, 서기 1명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참가자를 섭외하고 관심있는 9경에 분임을 배치하였다.

② 밤마실 夜한구경 활성화 방안과 100인의 정책토론회 기획

□ 군민참여형 정책추진방안 제안

- 99인의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공통적인 것은, 1)토론회가 좀 더 많아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2)밤마실 夜한구경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는 것이었다.
- 군정참여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2016년도 주요안건을 토론회와 콘서트 개최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개 안건에 대한 콘셉트회의를 분과별로 진행하게 된다.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불금이夜 프로그램과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직접 기획하게 되었다.

□ 『야(夜), 구경가자!』 콘서트와 『100인의 생각』 토론회 개최 계획 수립

- '16년 5월부터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불금이夜 콘서트는 『야(夜), 구경가자!』 콘서트로, 100인의 정책토론회는 『부안군민 100 인의 생각, 김종규군수가 듣는다』 로 계획을 완성하고 7월부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프로그램 추진

의 제	내 용		비고
야한구경 불금이夜 (10백만원)	명 칭	<야(夜), 구경가자!>	
	일 시	1회(7.29), 2회(8.12)	
	구 간	야한4경 물고기夜, 야한5경 정원이夜	
	차량통제	17:00 ~ 22:00	
	공연PG	식전행사 : 사물놀이, 풍물패 등	
		메인공연 : 포스댄스컴퍼니, 클나무오케스트라 등 동호회공연 : 색소폰, 오카리나, 기타, 댄스 등	
체험PG	전래놀이, 플리마켓, 아트커뮤니티 등		
정책콘서트 (10백만원)	명 칭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김종규군수가 듣는다	
	장 소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강당	
	구 성	여백콘서트(7.13) : 여성창의위원회 “부안마실축제”	
		کم백콘서트(8.11) :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정책”	
		청백콘서트(8.27) : 부안군청년회의소 “청년이 할 일”	
을백콘서트(9.23) : 군정참여위원회 “행복지수”			

□ 밤마실 夜한구경의 재담꾼 : 지역문화해설사 양성 35명('16. 4월)

- 99인의 원탁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안전은 스토리텔링이었다.
이에 군산대학교와 협업하여 지역문화해설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 2개월간(2.24~4.9)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지역문화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고살이야기, 밤마실 夜한구경을 소개하는 마을재담꾼이다.



③ **군민디자인단이 기획한 군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성과**

□ **야(夜), 구경가자! 2회 개최**

- 부안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 계기
 - 야한4경 물고기夜, 야한5경 정원이夜는 폐수로와 폐구거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매출액 하락을 걱정한 인근 상가들의 극심한 반대로 추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야(夜), 구경가자!』 프로그램 운영 후 물고기夜의 물의거리는 오랜 현안이었던 차 없는 거리조성에 여론이 확산되었고, 정원이夜는 인근 상가의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긍정적인 여론으로 전환되었다.
- 재능나눔콘서트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가자들의 자긍심 고취
 - 2회에 걸쳐 진행한 『야(夜), 구경가자!』는 유치원생부터 어르신 들까지 18개 단체 350여 명으로 회당 700만의 예산으로 연인원 6천명의 군민들이 참여하면서 가장 잘 된 소축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 재능나눔참가자들도, 참여주민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전래놀이 체험과 플리마켓은 새로운 놀거리, 볼거리의 가능성을 열었다.



□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정책토론회 4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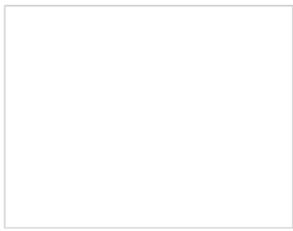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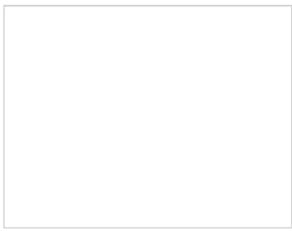
○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 의견 수렴

- 여백(여성 백명), 컴백(귀농귀촌인 백명), 청백(청년 백명), 올백(모든 군민 백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각 분임장들과 군수, 실무부서 팀장님들이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정책의 블루오션을 발굴하게 되었다.

○ 부정적 관심을 긍정적 참여로 전환

- 토론회에 참가함으로써 군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 개인의 불만이었는지 여러 사람의 여론이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불만은 해소하고, 형성된 중론은 정책으로 반영됨으로서 긍정적 참여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

○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자긍심 고취

			
여백토론회	컴백토론회	청백토론회	올백토론회

라. 향후 추진일정 및 보완사항

- 『물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여론 확산
 - 처음 조성 당시부터 차 없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조성하였고, 문화 예술의 거리가 없는 부안에서 상가주민들을 제외한 대다수 군민들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원하고 있다. 상가 앞에서 주·정차를 못할 경우 매출액이 하락할 거라는 상가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거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맑은물 사업소』 이전 후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 방안 모색
 -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토론회』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마침 물의 거리 인근의 맑은물사업소가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입주를 원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 공개토론회의 의제로 삼아 여론을 모으고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범군민 정책디자인단』 “COSMOS” 구성 추진
 - 토론회 주관단체들이 토론회 개최 성공 이후 군정참여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청소년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을 위한 청년재능나눔단체 COSMOS (Children Of Sensibility, Men Of Sincerity)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4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는 2017년부터 분야별, 부서별로 확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관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디자인단이 될 것이다.

바. 홍보 방안

□ 중앙일간지 홍보

	
<p>한국일보(2015. 8. 19)</p>	<p>스포츠조선(2016. 5. 3)</p>

□ TV 방영

전주MBC 생방송 뉴(2016.5.9)

□ 기타 보도자료

		
<p>부안도민일보('15.5.18)</p>	<p>NEWSIS('15.12.28)</p>	<p>전북일보('16.8.11)</p>

사. 기타 주요사항(규약, 용어설명 등)

□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행정의 3원칙과 소공동행정

○ 행정의 3원칙

행정 3원칙은 서비스행정, 마인드행정, 창조행정이다. 서비스행정은 일상업무는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마인드행정은 일상업무를 한차원 높게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치열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창조행정은 전혀 없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소공동행정

소공동은 소통, 공감, 동행의 앞머리 글자다. 소통은 형식을 버리고 마주하는 것이고, 공감은 경계를 허물고 함께 느끼는 것이며, 동행은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가는 것이다. 소통을 해야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 동행할 수 있다.

소공동의 의미

① 소통(의미)의 원리 : 소통의 의의와 중요성, 소통의 방법과 자세

② 공감(의의)의 원리 : 공감의 의의와 중요성, 공감의 방법과 자세

③ 동행(의의)의 원리 : 동행의 의의와 중요성, 동행의 방법과 자세

부안군 행정의 3원칙

행정 3원칙

구분	내용	실천방법
서비스행정	일상업무는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생각하라(think)
마인드행정	일상업무를 한차원 높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창조행정	전혀 없던 새로운 시책	더 치열하게 생각하라(think more)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 행정의 3원칙과 소공동 행정은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안군청 공무원들의 행정스킬이자 덕목이다.

□ 주민참여형 디자인단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규정

○ 『부안군 군정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5.2월)』

○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15.2월)』

⇒ 201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 58건, 1,057백만원

⇒ 201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 37건, 1,008백만원

첨부1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활동 실적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구성**

구분	성명/소속/직위	역할
서비스 디자이너	고광철 대표 (초록디자인)	군정참여위원회 부위원장
전문가	권순중 사무국장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생활문화예술인 섭외
정책 수요자	함은미	벗넛넷대표(문학이夜 운영프로그램)
	김복순	석정문학관 간사(문학이夜 운영프로그램)
	김영택	문화모임 도올 회원(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김슬지	대학원생(청춘이夜 운영프로그램)
	장송희	문화관광해설사(매창이夜 운영프로그램)
	이춘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별천지夜 운영프로그램)
	서정용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호숫가夜 운영프로그램)
	남정수	부안상설시장상인회장(시장이夜 운영프로그램)
	신지양	부안상설시장사업단장(시장이夜 운영프로그램)
	김화영	전래놀이 동호회장(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김재성	약사(청춘이夜 운영프로그램)
	두염연	다문화가정(호숫가夜 운영프로그램)
	김경성	부안문화원 사무국장(매창이夜 운영프로그램)
박상희	경찰(청소년 프로그램)	
주관부서 (사업담당)	기획감사실 황은성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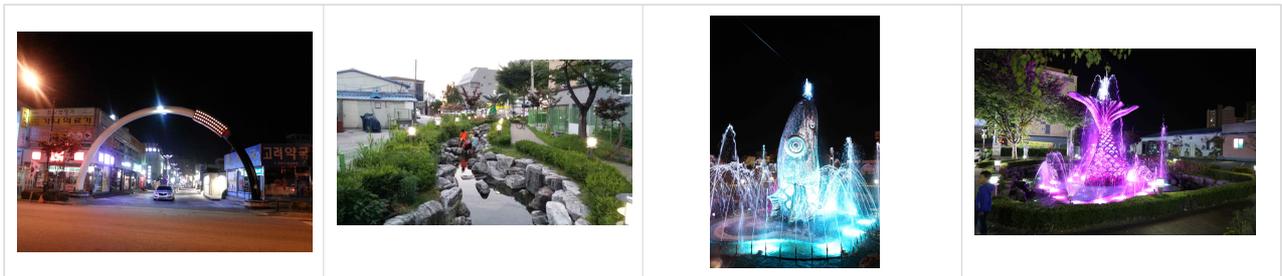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활동내용
1차	2015. 12. 29	부안 K컨벤션 웨딩홀	19명	99인의 원탁토론회 개최
2차	2016. 7. 29	밤마실 야한구경	19명	야(夜), 구경가자 개최
3차	2016. 8. 12.	"	19명	야(夜), 구경가자 개최
4차	2016. 9. 23	부안예술회관	12명	올백토론회 개최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 총평

- 부안군 도시재생사업의 흑역사를 바꾸다.

최초의 도시재생사업 “부안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긴 물고기가 있다”

방폐장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성되던 『물의 거리』는 방폐장사건이 끝나고 마무리 되었다. 냄새나던 시궁창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물고기 형태의 맑은 물길이 되었고, 물길의 양쪽 끝에는 물고기 머리와 꼬리 모양의 분수가 자리 잡았다. 그 옆을 지나는 도로는 인공 시냇물이 졸졸 흐르도록 조성되었다. 읍내에서 가장 낙후된 상권이었던 그 곳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변화한 곳이 되었고 <부광 여관거리>라는 근대적인 명칭에서 <물의 거리>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게 되었다.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물의 거리는 그 완성도는 높았지만, 방폐장사건의 여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심지어, 민선3기 때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이 부정되었다.



-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 인근 상가들로 인해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들다

일반주민들에겐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다소 생소했던 2004년 당시에는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간접적인 공공사업의 경우 사치스럽다, 불필요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게다가 물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를 콘셉트로 조성했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아닌 판석을 깔아 놓았지만 인근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차량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젠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기대감에 보수만 할 뿐 바꾸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갔고, 바닥 보수를 위해 매년 3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부안읍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란?**

물의거리와 통통피쉬 외에도 찜지공원, 벽화분수, 등대 등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서도 소소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곳들은 낮에는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와 쉼터로 자리 잡고, 밤에는 을씨년스러운 읍내거리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부안읍을 찾는 안목 있는 관광객들에게는 지방 소도읍에서 볼 수 없는 빼어난 볼거리였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엉뚱한 곳에 군비를 투자했다는 여론은 사업의 높은 완성도를 떠나 주민들에겐 항상 불만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민생과 상관없는 걸치레나 사치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제2의 물의 거리, 제2의 찜지공원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 **너에게로(정원이夜_夜한5경) 조성 당시의 주민반대**

민선6기가 시작되고 도시재생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야한 5경 정원이夜의 너에게路 1구간은 오랫동안 인도 옆에 방치되어 있던 곳을 주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민들 반응은 대체로 무난했지만 여전히 사치성 예산으로 보는 시각도 남아 있다. 700m²는 산책하기엔 다소 짧은 구간이었던 터라 2구간을 확장하기로 했지만 주민들과 주차장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다. 인접 지역에 상가가 없는 1구간과 달리 2구간은 상가가 몇 개 있었다. 상가 앞 사업부지인 공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었고, 정원이 조성될 경우 주차의 불편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게 이유였다.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은 반대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몇몇 상가의 극심한 반대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5월 부안 마실축제 전까지 왔고, 담당부서의 꾸준한 설득 과 노력으로 반신 반의의 동의를 얻어 너에게路 2구간이 준공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민들은 길어진 산책로를 환영했 고,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상가에선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



○ **군정참여위원회의 노력과 결실**

군정참여위원회가 밤마실 夜한구경 중 야한4경과 야한5경을 주목한 것은 야한4경 물고기夜(물의거리)의 오랜 현안문제인 ‘차 없는 거리’ 조성이었고, 야한5경 정원이夜(너에게路) 현안은 상가여론과 활용도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곳에서 콘서트와 플리마켓을 개최함으로써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도 운영프로그램이 있다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현재 ‘차 없는 거리’ 조성은 95%의 상가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야한5경 정원이夜(너에게路)는 주민주도형 플리마켓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였다.

○ **젊음의 거리와 에너지테마거리(청춘이夜_夜한3경) 조성의 간극과 주민변화**

젊음의 거리는 한때 본정통으로 불리던 구도심의 변화가였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 변화했던 거리는 을씨년스러워졌고, 여전히 즐비한 여인숙과 술집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나 한때 영화로웠음을 추억하게 할 뿐 거의 휴·폐점 상태의 흉물로 남았다. 이곳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도로를 보수하고 가로수를 심었지만 거리와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젊은이들이 찾지는 않았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인프라를 위해 인접한 곳에 에너지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기대치는 낮았다.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던 너에게路 사업을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너에게路가 인기명소가 되고 인근 상가의 매출액이 늘자 거리활 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최근에 준공을 하게 되었다.



○ 부족한 예산과 부정적인 주민정서

도시재생사업은 직접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박 2일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할 예산이 부족하였고 주민들에겐 직접적인 시너지가 쉽게 발생하지 않아 번번이 예산낭비라는 여론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첫 번째 조건은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끌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과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은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는 기획이 필요했다. 그 후에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그 보배도 목에 걸어야 진짜 보배가 되기 때문이다.

- 국민디자인단이 기획한 사업계획을 실행할 예산 필요
 - 사회단체나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고 구성원들 스스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한다는 편견을 원하지 않았다. 행사성 경비의 감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군비를 편성한다 해도 예산의 주체가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에 간섭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 순수민간단체로 활동할 경우 기금 등을 조성하여 자체 예산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군정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자칫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국비로 지원한다면, 주민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일반군민들에게 벤치마킹 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를 견학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각 구성원들이 자비를 내야하므로 타 지자체 국민디자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경진대회 우수 디자인단이나 우수사례에 선정된 디자인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PPT 자료 별도 첨부하였음

- 붙임 1) 밤마실 夜한구경 조감도
2) 99인의 원탁토론회 자료
3) 야(夜), 구경가자 동영상 자료
4) 불안군민 100인의 생각 정책토론회 동영상 자료
5) 3.0 벤치마킹 우수사례 PPT 자료